

李滉 書翰을 통해본 明宗代 書院의 創設과 運營*

김형수**

차례

- I. 머리말
- II. 명종대의 정국과 이황의 출처관
 - 1) 명종대의 정국과 이황의 부상
 - 2) 이황의 출처관
- III. 이황의 서원 창설운동과 운영관
 - 1) 배향자의 선택
 - 2) 서원에서의 강습과 지향점
- IV. 맺음말

【국문초록】

서원은 조선중기 이래 사족의 교육·교화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대표적인 향촌 운영기구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특히 17세기 이후 서원은 재지 사림의 중심적 기구로 되었으며, 이후 정치·사회·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원 창설기의 사림의 종장으로 활동하였던 이황은 서원의 창설에 부단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황은 서원의 창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인들과 끊임없이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이황의 서원에 대한 관심은 이후 조선에 있어서 서원의 운영과 제향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국학진흥원 원내 과제로 작성된 것임.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이황은 서원의 제향인물을 道學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이황이 처음부터 도학자만 서원에 제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충절과 도덕 모두 제향의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성주 영봉서원의 위차 및 배향논쟁을 거친 후 道學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영봉서원에 배향될 인물로 李仁復을 거명하고, 역동서원에 禹倬을 배향하도록 결정한 것은 모두 道學을 중시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복을 ‘名敎에 도움이 된’ 인물로 평가하고, 우탁의 道學者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킨 것도 이황이 고려시대의 인물을 도학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황이 서원의 기능 중 하나로 주장했던 尊賢은 당시 사람들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정한 道學者를 존송하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이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 한편 이황은 東國의 인물들만을 제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존현을 하는 것은 후학들이 모범으로 삼고 따라 배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儒賢보다는 동국의 儒賢을 배향하는 것이 좀 더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황은 서원이 담당해야 할 임무를 학문의 창달뿐만 아니라 ‘향촌의 교화’라는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서원은 강학과 더불어 당시 사람들이 꿈꾸었던 향촌 자치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사립의 ‘爲己之學’이 성숙해야만 했다. 이황이 서원에서 講學을 강조하고 講會를 열어 끊임없이 주자학의 이해를 심화시켰던 것은 사립의 정치적 이상을 학문적으로 추구하여 그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했다.

주제어

書院, 李滉, 書翰, 祭享, 道學, 講會

I. 머리말

서원은 중국에서 唐代에 서적을 보관하는 기관으로 처음 출현하였다. 서원의 효시는 당대 麗正書院과 集賢書院으로 국가에서 관부의 하나로 설치한 것이었다. 이후 당대에는 여러 서원이 설치되었으나, 士子들이 학업에 전념하기 위한 것으로는 五代十國시대에 민간에서 교학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송대에는 理學의 성행과 더불어 720개에 달하는 서원이 세워짐으로써 서원의 교육제도 및 운영이 확립되었다.¹⁾

조선에 있어서 서원은 중종대 주세붕에 의해 백운동서원이 창건된 이래, 퇴계 이황이 서원의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사림의 藏修之地로 간주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서원은 조선중기 이래 사족의 교육·교화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대표적인 향촌운영기구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특히 17세기 이후 향교·유향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서원은 재지 사림의 중심적 기구로 되었으며, 이후 정치·사회·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서원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베풀어져 류홍렬에 의해 최초의 서원연구가²⁾ 제출된 이래 많은 연구가 제출되었다.³⁾ 특히 정만조,⁴⁾

1) 劉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

2) 柳洪烈, 「朝鮮における書院の成立」, 『靑丘學叢』29·30, 1937·1938. (1980, 『한국사회사상사논고』, 일조각에 「조선에 있어서의 서원의 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전문 번역 수록)

3) 서원연구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고석규, 「조선 서원·사우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그 성격」, 『외대사학』1, 1987.

이해준,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국사편찬위원회)21, 1991.

정만조, 「한국 서원의 연구현황과 전망」,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한국의 서원과 학맥연구』, 국학자료원, 2002.

4) 정만조, 『조선시기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이수환,⁵⁾ 윤희면⁶⁾, 이해준⁷⁾ 등이 서원에 대한 專論書를 출간하여 연구의 폭을 넓혔다.

초기 서원연구는 일제시기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사림정치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이태진의⁸⁾ 연구와 아울러 서원의 소장문서들을 분석한 이수환 등의 연구,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치하게 분석한 정순목의 연구가⁹⁾ 등장하면서 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듯이 書院은 조선사회에 있어서 향촌사림의 중심적 논의 기구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서원의 설립과 보급에 있어서 이황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이황은 주세붕이 건립한 백운동서원의 운영을 사림 중심으로 굳히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명종대 건립된 서원들 대부분은 이황의 자문 또는 격려에 의해 건립과 인물의 배향이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이황의 서원관 및 이황이 서원창설운동에 끼친 영향 등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¹⁰⁾

이 글에서는 선학들의 연구를 수용하고, 이황이 가지고 있었던 서원에 대한 인식과 배향자의 결정, 운영 등에 대한 것을 이황이 남긴 편지

5)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6)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7)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 경인문화사, 2008.

8) 이태진, 「사림과 서원」,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12, 1978.

9)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10) 이우성, 「퇴계선생과 서원창설운동」, 『퇴계학보』19, 1978.

정만조, 「퇴계 이황의 서원론: 그의 교화론과 관련하여」,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박양자, 「이퇴계의 서원관」, 『퇴계학보』83, 1994.

들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황은 30대부터 세상을 떠나는 1570년까지 끊임없이 편지를 썼다. 이황의 편지는 현재 약 3,200여 통이 남아 있는데, 이 중 서원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102통에 달한다. 이황은 서한을 통하여 제자 및 지인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백운동서원의 사액이 성공한 이래 서원의 운영, 배향자의 결정, 강습 내용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표출하였다. 당시 서원은 사림들이 새로이 가지게 된 논의의 場으로, 사회로 인하여 위축된 사림들이 다시 학문적 논의의 공간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사림의 종장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이황은 서원의 창설과 운영에 대하여 사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논의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서원의 형태가 안착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공헌을 하였으며, 이후 서원은 이황이 세운 모범을 따라 운영하였다. 그러므로 이황의 서원에 대한 인식은 이후 서원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이황은 초기 서원의 운영 즉 교육과 배향인물에 대하여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퇴계 이황의 서한을 중심으로¹¹⁾ 퇴계 이황과 그 문인집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원 창설에 대한 입장과 상호 의견교환을 살펴봄으로써 16세기 서원창설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당대인들의 인식과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명종대 사림파의 종장으로 자리를 확보한 퇴계가

11) 이 연구에서 사용한 퇴계 이황의 각종 서한과 저술들은 『정본퇴계전서』(퇴계학연구원, www.toegye.org)를 이용하였다. 1차 교감본이기는 하지만 퇴계의 각종 서한들이 편집되지 않고 전문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용하기 편리하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발간한 영인본과 『도산전서』본이 있지만, 서한을 수급인물별로 분류하고 표점 및 교감을 가함으로써 이황 서한의 원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중종·명종대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입장과 출처관을 살펴보고, 배향 인물의 결정, 서원에서의 강습과 지향점 등을 살펴봄으로 이황의 서원관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명종대의 정국과 이황의 출처관

1) 명종대의 정국과 이황의 부상

1545년 8월 일어난 을사사화는 명종대의 정국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이기·윤원형 등이 대간으로 하여금 윤임·유관·유인숙 등을 탄핵하도록 하였으나 대간이 거부하자 이기·윤원형을 비롯한 정순봉·임백령·허자 등의 주도하에 대신들만이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윤인은 윤임과 유관·유인숙은 애매모호한 죄목으로 각기 유배, 과직, 遞差되었다. 이에 대해 홍문관의 관원들과 집의 송희규·사간 박광우 등이 그 부당성을 논박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하였고, 권벌이 유관·유인숙의 억울함을 극력 변론함으로써 권벌 자신도 ‘護黨’으로 몰리면서 3인에게는 더욱 죄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윤임·유관·유인숙과 李輝·李德應은 참형에 처해졌고, 권벌 또한 遞差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사공신 28인, 원종공신 1400명이 책록되었다. 여기에 경기도 관찰사 金明胤이 계림군 璫와 봉성군 峴을 역모로 고변함으로써 피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사림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¹²⁾

12) 이병휴, 「사림의 진출과 사화」, 『한국사28: 조선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이로 인하여 명종초기 정국은 권신 이기와 척신 윤원형이 주도하는 공신 중심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들 세력은 대부분 왕실 및 문정왕후와 혈연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인물로 구성되었는데 척신이라는 명분상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훈구계와 결탁 하였고, 이후 문정왕후의 지원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갔다. 이들 공신 중심의 훈척세력은 을사사화가 대의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로 사림파를 중심으로 한 신료들의 비판을 받게 되자, 비판적 여론을 무마 하기 위하여 반대세력을 철저히 탄압하는 강경책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명종 2년 9월 양재역의 벽에 쓰여 있던 “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 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농권하고 있으니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이란 구절을 구실로 乙巳被禍人에게 加罪한 양재역벽서사건이 발생하여 송인수·이 약빙은 사형을 당하였고, 권벌·이언적·노수신·류희춘·백인걸 등 20 여인이 유배를 당하면서 사림의 세력은 극도로 위축되었다.¹³⁾

명종 4년 4월에는 윤임의 사위인 이홍윤이 명종을 연산군에 비유하여 비방하였고 충주 거주인을 규합하여 역모를 꾀했다는 이홍남의 고변으로 옥사가 이루어져 충주 일대가 텅 비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¹⁴⁾

이들 훈척세력은 철저하게 반대세력을 제거하였으나, 집권의 정당성

국사편찬위원회, 1996.

13) 이병휴, 위 논문.

14) 이홍남 사건 처리를 위하여 당시 공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던 이해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죄인의 재물과 전답을 임의로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역당을 비호하였다는 죄를 쓰고 국문을 받았으며 결국 갑산으로 杖流되던 도중 사망하였다. 형인 이해의 사망은 이황의 출처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자·민제인·이언적·신광한·이윤경 등으로 대표되는 사림과 인물들을 포섭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기묘사화 이후 몸을 사려 관계로의 진출에 소극적이던 사림세력은 종종 후반기부터 출사하기 시작하여 주로 언관과 낭관직에 진출하였다. 일부 사림과 인물들이 비록 공신에 녹훈되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건의 공정한 처리, 피화인의 축소 등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훈척세력의 정국운영 방식이 자기들의 이상과 다르게 나타나자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 나름대로 공론을 부지하고자 하였다.¹⁵⁾

한편 을사사화를 주도했던 이기·윤원형 세력은 명종 3년 2월 안명세 사건을 계기로 분열되었다. 이기 세력은 이언적·권벌 등 사림세력을 모살하고 사건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윤원형 등은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건의 확대를 막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기는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윤원형 중심의 소윤지배체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윤원형 세력의 주도권이 확고해 지면서 명종 8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명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문정왕후는 명종에게 매우 강한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명종은 친정을 하면서 소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왕비의 외숙인 이량을 윤원형의 대응세력으로 양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명종 20년 문정왕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윤원형 일파가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황이 사림의 새로운 지도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도 바로 이 시

15) 김우기, 『16세기 척신정치의 전개와 기반』,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31쪽.

기였다. 명종 3년(1548) 당시 단양군수로 있던 이황은 “京師에 머물게 하여 顧問에 대비하게 하면 신정新政에도 도움”¹⁶⁾을 줄 인물로 사헌부의 추천을 받았고, 그 직후 풍기군수로 옮긴 후 소수서원의 사액을 성공시키면서 사림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명종 8년(1553) 경부터는 “사람됨이 자질이 영민하고 학문이 높았다. 『小學』으로 자질의 법을 삼았고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의관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행동과 언어를 반드시 때에 알맞게 하였다. 性理의 근원을 깊이 탐구하여 한 시대 士林의 領袖가 되었다.”¹⁷⁾고 하여 명종 8년에는 사림의 종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아직 기묘사화 이후 사림들은 위축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황도 1550년 제자인 조목에게 보낸 편지에서 “온 세상이 비탄하고 비웃어도 개의치 말고 힘써야”하며 “뜻하지 않게 世路에 빠져 습속에 따라 골몰하여 수십 년을 허송하였다고”하여¹⁸⁾ 오히려 관계에 나간 시절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황은 향촌사회에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서원 건립운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서원은 先賢의 奉祀·학문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집권세력의 직접적인 공격을 약화시키면서 사림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명종대 사림의 종주였던 이황은 서원의 의미를 “선비가 학문을 함에 있어서 그 힘을 서원에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6) 『명종실록』권 명종 3년 1월 13일.

17) 『명종실록』권 명종 8년 4월 24일 기해 史臣評.

18) 『정본퇴계전서』書-趙穆-2答趙士敬 1550년 11월 26일 “而又不意失脚世路，徇俗汨沒，不知不覺之頃，數十年光陰，忽已蹉過。回首茫然，撫躬浩歎，而不可追矣。奈何奈何。愧死愧死。”

국가가 현인을 얻음에 있어서도 또한 서원이 국학이나 향교보다 나을 것”이며,¹⁹⁾ 비록 이전에 주세붕이 서원을 건립할 때 비방이 있었으나 “전고에 없던 성대한 조치로” 이로 말미암아 서원이 조선에 세워짐은 “중국과 같아지는 경사”라고 주장하였다.²⁰⁾ 따라서 사림이 정국의 운영을 주도하게 되면서 서원의 건립은 가속화되었고, 이후 전개되는 사림정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림들은 자신들의 이상에 부합되는 선현들을 서원에 奉祀하면서 사림집단의 정체성을 다져나갔고, 서원에 제향된 인물들은 이후 사림의 모범으로 인식되었으며, 서원에 제향되지 못하였다더라도 지역단위에서 존송되는 인물들을 鄉賢祠에 모시면서, 서원이나 향현사에 배향된 인물들의 후손들은 각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2) 이황의 출처관

이황은 명종대 ‘難進易退’를 거듭하면서 명종대 정국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주저하였다. 이는 형인 이해가 명종 초 사화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황은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나아가는 것이 恭順한 것이고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나아가지 않는 것이 공순한 것이라고 하여 출처에도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출처에 대해

19) 『정본퇴계전서』書-沈通源-1 上沈方伯〔通源○己酉〕 1549년 12월 “非惟士之爲學，得力於書院，國家之得賢，亦必於此而優於彼也。”

20) 『정본퇴계전서』書-沈通源-1 上沈方伯〔通源○己酉〕 1549년 12월 “而獨書院之設，前未有聞，此乃吾東方一大欠典也。周侯之始建書院也，俗頗疑怪，而周侯之志益篤，冒衆笑，排羣謗，而辦此前古所無之盛舉。噫！天其或者由是而興書院之教於東方，使可同於上國也。”

관직이 낮을 때 임금이 부르면 달려갔지만 높은 관직으로 부를 때는 반드시 사양했고, 마지못해 나아가더라도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굳이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처의 대의를 돌보지 않고 임금의 은혜를 내세워 물러나지 않는 것은 군신 관계가 도의가 아니 작록으로 맺어진 때문이라 비판했다.

이황이 명종대 出處를 반복한 것은 소수의 權奸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훈척정권 하에서 내면적으로 확고한 출처대의를 확립하고 있으면서, 군자 및 도덕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 건설을 위한 개혁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던데 그 배경이 있었다. 이러한 그의 출처의리는 사림들에 의해 소인으로 지목된 척신을 척결의 대상이 아닌 제어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황의 出處觀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曹好益은 초년에는 요순시대를 구현할 뜻이 있었으나 시세가 불가능함을 알고 학문에 매진하게 되었던 것이지 뜻이 나약하여 일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옹호하였으며, 이국필은 이황이 남들과 다투지는 않았지만 대부들과는 반드시 정색을 하여 끝까지 시비를 가려내고야 말아 권력과 타협하기를 거부했음을 강조하는 한편 不仁을 보면 미워하되 성내지 않는 처신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이덕홍도 이황의 출처에 대한 비판이 있자 '도에 만족해서 세상을 비루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出과 處의 사이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며 성현의 출처는 시운의 성쇠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옹호하였다.²¹⁾

21) 설석규, 「주희·이황의 이학적 세계관과 현실대응 자세」, 『안동학연구』5, 2006, 42~45쪽.

이황의 반복되는 출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선조대이기는 하지만 김개는 이황의 ‘難進易退’에 대하여 작록을 얻은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으며,²²⁾ 오랫동안의 동료였던 이준경은 이황을 ‘山禽野獸’에 비하기도 했다.²³⁾ 이황과 동시대의 거유였던 조식은 기대승과 四七論辯을 진행하고 있던 이황에게 ‘盜名欺世’한다는 냉혹한 비난을 가하기도 했던 것이다.²⁴⁾

그러나 이황의 주변에서는 1540년대부터 이황의 소극적인 출처를 지지하는 일군의 제자집단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황의 학문관과 출처관에 동의하면서 이황의 문하에 집결한 초기 제자들은 주로 예안에 거주하면서 권근의 『천명도설』과 『심경』 그리고 이황이 편찬을 주관한 『주자서절요』를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학문공동체를 모색하고 있었다. 김부필·김부륜, 그리고 금난수·조목, 이덕홍 등은 이황의 학문적 입장에 동의하면서 늦어도 1549년부터는 집단적인 주자학 연구에 몰입하고 있었다.

Ⅲ. 이황의 서원 창설운동과 운영관

1) 배향자의 선택

이황은 서원의 배향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22) 『宣祖修正實錄』 권3, 선조 2년(1569) 6월 1일(계유).

23) 『練藜室記述』 권12, 宣祖朝故事本末 李浚慶遺笥.

『宣祖修正實錄』 권3, 선조 2년(1569) 6월 1일(계유).

24) 설석규, 『남명학과 정치철학 연구』, 2001, 65쪽.

이황은 영봉서원과 서악서원의 배향 인물 결정에 간여하였고, 역동서원의 경우 자신이 배향자를 직접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황이 관심을 기울인 서원의 경우 대부분 명종대 서원으로서의 자리를 확립하였고, 역동서원의 경우 비록 선조대 건립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명종 21년 조목 등과 더불어 서원의 위치를 살펴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²⁵⁾ 이황이 건립 또는 운영에 관심을 기울인 서원들은 대부분 前朝의 인물을 배향자로 선택하였으며,²⁶⁾ 東國의 名賢 특히 그 지역 출신의 先賢을 배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만약 적당한 先賢이 없다면 아예 배향자를 결정하지 않고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²⁷⁾

〈표 1〉 명종대 서원의 배향자와 주도인물²⁸⁾

서원명	지역	창건연도	배향자	창건주도자	비고
竹溪書院	豐基	중종38(1543)	安裕·安軸·安輔	周世鵬	紹修書院
臨臯書院	永川	명종9(1554)	鄭夢周	영천사림(金應生 鄭元良盧遂)	
文憲書院	海州	명종4(1449)	崔沖	周世鵬	
迎鳳書院	星州	명종13(1558)	李兆年·李仁復· 金宏弼	盧慶麟·星州士林	천곡서원(程頤· 朱熹·金宏弼)

25) 『정본퇴계전서』書-趙穆-109 與趙士敬·琴聞遠〔丙寅〕 1566년 3~4월 “書院事，昨與聞遠，粗言其槩。但卜地事，更思之，前卜之地，若有耕地如聞遠之言，恐不須改卜於他，而定於此。所恨者，西向爲未便耳。若丹砂則雖或有可當處，有司人往來不便近，此似爲難。近日若僉會更卜，姑除丹砂，只先會東村。”

26) 조선시대의 인물이 주향이 된 서원은 정여장을 모신 남계서원이 유일하다.

27) 배향자를 비워두는 경우 대부분 후에 이황을 主享으로 결정하였다.

28) 이황의 書院十詠(『퇴계집』 권4)의 서원에 이황이 직접 서원의 건립을 주도한 역동서원을 포함시켰다. 건립연대와 창건주도 인물들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 『정본퇴계전서』 『俎豆錄』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丘山書院	江陵	명종16(1561)	孔子	咸軒·江陵士林 (尹仁恕·洪春年·崔燾·崔雲遇)	五峰書院
藍溪書院	咸陽	명종7(1552)	鄭汝昌		
伊山書院	榮川	명종13(1558)	없음	安瑞·榮川士林	
西岳精舍	慶州	명종18(1563)	薛聰·崔致遠·金庚信	李楨·慶州士林	西嶽書院
畫巖書院	大丘	명종19(1564)	없음	李叔樛	研經書院(李滉)
易東書院	禮安	선조즉위 (1567)	禹倬	郭越·예안 사림 (李滉·조목등)	

명종 당시 창건된 서원의 主享者는 대부분 고려시대의 인물이었다. 이황 자신은 배향에 적합한 인물로 여겼던 인물은 첫째 도학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 마땅하며,²⁹⁾ 그렇지 않는 경우 즉 적당한 인물이 없을 경우 주향을 비워두어도 무방하다고까지 하였다.³⁰⁾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황이 도학자만을 배향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충절인과 도학자를 같이 배향하여도 무방하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이황이 배향자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서원은 성주의 영봉서원이었다. 영봉서원은 목사 盧慶麟과 성주사림들이 합심하여 1554년 건립한 것이었다.³¹⁾ 이황은 盧慶麟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迎鳳書

29) 『정본퇴계전서』書-盧慶麟-3 1560년 6월. “而在書院，則爲道學之意尤專，其祀賢也，以道學爲主，可也.”

30) 『정본퇴계전서』記-005 「伊山書院記」, “乃遣儒生張壽禧，來屬於滉，且曰“吾鄉先正可祠於學者，未有定論，於書院之制，斯爲未備，欲姑以書齋名之何如?”滉辭之不得，則復之曰“古之書院所祠，豈盡其鄉之人哉?有祀先聖先師者，亦有不立祠廟者，惟視其力、從其宜而已.”

31) 『정본퇴계전서』記-006 「迎鳳書院記」, (1560)

院記」를 작성하였다. 당시 성주 사립들은 성주출신의 이조년·이인복과 더불어 妻鄉인 김굉필을 배향하기로 결정하고 書院記를 이황에게 위촉한 것이었다. 이황은 「迎鳳書院記」에서 “묘우를 세워 선현을 향사하는 것은 도를 높이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하고, “옛 성현의 일언일행은 모두 師法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三賢의 진실한 충의와 도덕의 빛은 직접 (성현에게서) 직접 배운 것과 다름이 없고 또 충의와 도덕은 두 가지가 아니”라고³²⁾ 하였다. 그러나 이황의 문인 황준량이 이조년의 화상에 염주를 들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³³⁾ “현자라도 시속을 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후학이 자랑으로 삼을만한 것은 아닌 듯하다”라고³⁴⁾ 우려를 표방하였다. 그 후 다시 황준량의 건의를³⁵⁾ 받아들여 노경린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굉필은 道學之宗으로 이조년·이인복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같이 향사한다면 김굉필을 주향으로 하여야 하며, 묘우의 명을 表忠으로 하지 말고 景賢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³⁶⁾ 이렇게 보았을 때 이황은 영봉서원의 위치문제에 적극적으로

32) 『정본퇴계전서』記-006 「迎鳳書院記」(1560) “則凡古昔聖賢一言一行, 皆可師法, 而況於此邦三賢忠義之實、道德之光、無異於親炙之者乎? 夫忠義道德, 本非二致”

33) 『錦溪集』권4 雜著 「上退溪書」, “文烈則握珠手中 不可齒之學宮 非徒吾輩也 京外之論已定 斷不容復論矣. 手珠之翁若議入祠 則諸生寧有納履而去 一院之中無儒生之迹矣”

34) 『정본퇴계전서』書-盧慶麟-1 答盧仁甫〔慶麟○庚申〕1560년 6월. “就中仲舉云, 文烈畫像, 手執數珠, 此乃一時習尙爲然, 雖賢者, 未能免俗之故. 然今置之學傍, 實非所以示後學矜式之道也”

35) 『錦溪集』권7 外集 書 「上退溪先生書」, “鄙意以爲文烈忠義 可激淪俗 而不見從事於淵源之地 則是不過鄉先生可祭於社者 若欲新揭廟貌 爲千萬古瞻慕之所 則恐未承當 少文烈 所以重斯道也 今若立廟於故居 配以文忠 復後裔以守之 設院於閑地 以爲游學講道之場 則衆賢興化 併行不悖 不知何如 必欲院隸護廟 鄉生奉享 無奈未安於院儒之心耶 但彼意已定 位次垂成 特爲衆口所撓如是云云 拜惟鑑裁”

36) 『정본퇴계전서』書-盧慶麟- 答盧仁甫 1560년 7월 “祠名表忠, 今不可仍存. 滉意院既有

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主配의 문제에 있어서 道學을 우선으로 삼고, 다음으로 충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되었다. 당시 이조년의 배향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음을 알 수 있지만, 이인복의 경우 그다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³⁷⁾

이조년은 충혜왕대 諫官으로 활동하면서 조적의 난 때 충혜왕을 옹호 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충혜왕의 난정에 대하여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등 강직한 언관으로 명성을 드높인 인물이었다.³⁸⁾ 이인복은 이조년의 손자로 충혜왕 복위 3년(1342) 元의 制科에 합격한 후 공민왕대 역사서를 편찬하고 과거를 주관하는 등 당대의 성리학자로 명성이 있었다.³⁹⁾ 이황도 『영봉서원기』에서 이조년을 “난세에 혼주를 섬겨 충절을 다하여 臣節을 온전히 한” 인물로 평가하고, 이인복은 “문학이 高古하여 명성이 중국에 떨쳤으며” 또 “그 사업이 名敎에 도움이 되었던” 인물로 평가하여⁴⁰⁾ 이조년을 충절이 뛰어난 인물로, 이인복은 名敎 즉 道學에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이조년의 불교관련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黃俊良에

名, 祠不必名, 若必名之, 欲以何名? 如來書名以三賢, 似好, 但古人以限數名堂, 爲無有待後來之意, 非之, 此不可法也. 今只以景賢之類易之, 何如?”

37) 『정본퇴계전서』書-李文樾-1 答李子發〔文樾〕 1563년 2월 22일 “凡來喻所及, 皆滉曾試妄發於彼而不用者也. 一再妄發, 已爲可吝, 況三五重仍而不知止乎? 且今次仲舉書中, 但言所以諸生收圈, 則謂宜獨祀寒暄者皆是, 欲配祀文忠者十餘人, 若欲並祀文烈, 則諸生舉欲納履而去云云. 觀其意, 非問寒暄·文忠之坐次, 特以滉曾作謬記, 與今所定者相反, 故聊以告其故, 且欲令滉改記, 以合於今所定云耳.”

38) 『고려사』 권109 열전22 李兆年.

39) 『고려사』 권112 열전25 李仁復.

40) 『정본퇴계전서』記-006 「迎鳳書院記, “若李文烈公兆年, 當亂世, 事昏主, 能奮忠竭誠, 犯顏諫諍, 不憚逆¹⁾鱗之禍, 及其終不可回, 則飄然脫屣, 匹馬還鄉, 以全臣節. 有若李文忠公仁復, 體質弘重, 文學高古, 名聞中華, 其遭亂則建討賊之義, 於逆髡則有先見之明, 而又能善處於二徽弟之間, 皆有補於名敎.”

게도 ‘중국의 예로 보자면 충절로 드러난 이조년의 경우 서원에 모신다 하더라도 안 될 것은 없지만 서원은 원래 道學을 밝히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학자가 아니라면 묘우에 모시기에 미안한 것’⁴¹⁾이라고 하여, 별사를 세워 모시고, 후손으로 하여금 수호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⁴²⁾

결국 이황의 주장은 서원에 향사될 인물은 道學者라야 한다는 것이었다.⁴³⁾ 그러므로 이황이 서원의 목적으로 든 ‘尊賢’⁴⁴⁾은 도학을 공부하는 도학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養士’는 도학을 공부하는 선비를 기른다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이황이 주장하는 尊賢養士는 사림의 이상에 부합하는 인물을 향사하고,⁴⁵⁾ 서원을 통하여 사림을 배양한다는 의미였다.⁴⁶⁾

-
- 41) 『정본퇴계전서』書-黃俊良-52 答黃仲舉[庚申] 1560년 1월 7일 夫以中朝書院言之, 亦非一槩, 或只祠先聖先師, 或祠其地之先賢, 或無廟祠, 而就其所祠, 又或非盡道學之人如盧書所舉者, 然則以文烈公忠節, 雖祠於院, 似若無不可者, 但書院本爲明道學而設, 人非道學, 而廟祠未安”
- 42) 상동 “則盧君所謀立祠院傍, 以護以享, 庶便於事而可久遠, 何不可之有乎? 若如來諭, 立廟故居, 復後裔以守, 恐又別生一事, 難期久遠也, 如何?”
- 43) 이러한 서원 배향 인물과 관련된 이황의 논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영봉서원은 서원의 명칭을 천곡서원으로 바꾸고 程頤·朱熹를 주향으로, 김굉필을 배향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황은 이증량에게 보낸 편지에서 “示諭書院事, 滉何敢定論, 古語云 “敗軍之將, 不可以語勇.” 於星謬論, 旣同敗將, 今雖強定, 何異於彼耶? 須堅禁諸君, 勿復枉詢, 以取人譏笑, 至懇至懇.”(『정본퇴계전서』書-李仲樑-31 【答李公幹[甲子]】 1564년 3월 16일)이라고 하여 스스로를 敗軍之將으로苦笑하였다.
- 44) 『정본퇴계전서』書-安瑤-1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丙辰○郡守安瑤即文成公之後] 1556년 12월 1일 “國家之許立書院, 何爲也哉? 將非尊賢養士樂育人材之地也乎?”
- 45) 경주의 서악서원에서도 위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황은 황준량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유신은 武德之人이므로 서원에 향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혹시 향중의 논란이 되어 분쟁이 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정본퇴계전서』書-黃俊良-80 答黃仲舉 “則角干武德之人, 不合於祀學, 必起爭論, 又甚於星山書院事也, 未知剛而終如何處置也, 此事, 滉初不知, 而物議以爲與滉通議爲之, 可笑”)
- 46) 『정본퇴계전서』書-鄭惟一-35 答鄭子中別紙 “星山前牧盧仁甫, 作書院於迎鳳山, 請記於

이황이 적극적으로 서원 건립을 추진한 역동서원은 이황 자신이 「역동서원기」를 작성하여 서원의 배향자로 禹倬을 결정하였다. 우탁은 충열왕 16년(1290) 과거에 급제하여 監察糾正, 成均祭酒를 역임하고, 예안에 낙향하여 생을 마친 인물로 '역학에 대한 지식이 심오하였으며, 程傳이 처음 전하여져 올 때 東方에서 능히 이해하는 자가 없었는데 우탁이 문을 닫고 한 달여 동안 탐구하여 이해하고 생도를 교육하니 理學이 비로소 행하여졌다'47)는 평가를 받았다. 우탁은 또한 禮安에서 생을 마쳤고, 후손 또한 예안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역동서원을 창건하면서 배향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었다.48)

이황은 우탁을 “학문은 속세의 누습을 벗어나 용문[정자]의 여운을 발함이 있었고, 이미 경사에 통하였고 의리의 학문을 행하였으며 「程易」으로 인하여 諸經을 통달한”49) 인물로 평가하고, 배향의 타당성을 부여하였다. 실제로 우탁의 정치적 활동은 주로 충열·충선왕대 諫臣으로 활

滉. 滉初不肯, 再三往復, 滉賞其誠懇, 聊應之. 其祠廟所祭, 初以李兆年·李仁復, 稍未恰人意, 久而未定. 最後, 乃以金先生宏弼同祠, 而其位次之定, 儘有曲折, 雖定而似不無後議耳. 今聞時議大以仁甫爲妄作, 并與周景遊爲不當創建書院以開流弊, 幾發彈章云. 若發則次第當共之矣. 三兩年前, 猶無此等議論, 今忽有之, 雖時稱向善識理之人, 亦同然一辭, 此又別是一等時節, 可怪可歎. 蓋論仁甫者, 非議其所祠之不合, 實以立書院爲罪. 然則紹修等諸書院, 賜額頒書, 以獎育材之意何在? 皆不可曉也. 雖然, 此爲子中言耳. 未易與人人開口也.”

47) 『고려사』 권109 열전22 禹倬

48) 『월진집』 권10 「易東書院記實」, “先正禹祭酒倬 當麗季 以儒林風節之宗 實居斯土 考其平生所爲 觸拂君惡 使不得肆 擊碎淫祠 使不得逞 其清風勁節 既足以廉頑立懦 而尤留情於易學 使東人得派伊洛之餘波 與聞義孔之道 則自先生沒 至于今二百有餘年 鄉人所以遐想景慕而不自己者”

49) 『정본퇴계전서』 記-010 易東書院記. 1568년 4월 16일 “先生之學, 其有以脫去世習之陋, 而有發於龍門之餘韻者矣. 既云通經史義理之學行, 則因程易而達諸經.”

동하면서 忠宣王이 숙창원비를蒸한 것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충직한 諫臣으로서의 모습으로⁵⁰⁾ 인해 節介있는 인물로 인식되어졌으나⁵¹⁾ 이황은 諫臣으로서의 禹倬의 모습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道學을 唱明한 우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봉서원에서 김굉필을 도학자로 언급 하면서, 이인복을 名教에 보탬이 되는 인물로 평가한 것과 같이, 우탁의 모습도 도학자로서의 면모만 부각시키고 있다.

이황이 서원의 기능 중 하나로 주장했던 尊賢은 당시 사람들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정한 道學者를 존송하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이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숙량이 건립에 깊이 개입했던 畫巖書院[연경서원]과 이황이 자문을 맡았던 伊山書院은 아예 묘우를 설치하지 않았고,⁵²⁾ 鄉賢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그 배향의 대상에 넣지 않았던 것이다.⁵³⁾

그런 한편 이황은 東國의 인물들만을 향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역동서원의 창건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인 김부필이 주희와 정이를 주향으로 모시고, 우탁을 배향하자고 건의하자 이황은 朱熹와 程頤를 主享으로 모시는 것에 대하여 난색을 표시하고, 우탁만을 배향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⁵⁴⁾

50) 『고려사』 권109 열전22 禹倬

51) 『佔畢齋集』 권3 「過禮安 有懷禹諫議倬, “麗運涵儲五百年 不圖衰叔有斯賢 彤庭持斧眞唐介 白屋窮經似鄭玄 鄉里幾人懷素節 子孫今日稅荒田 嗟余早負希顏志 獨拂儒紳一悵然”

52) 『정본퇴계전서』記-005 伊山書院記 1559년 8월 “且曰 “吾鄉先正可祠於學者, 未有定論, 於書院之制, 斯爲未備, 欲姑以書齋名之何如?” 滉辭之不得, 則復之曰 “古之書院所祠, 豈盡其鄉之人哉? 有祀先聖先師者, 亦有不立祠廟者, 惟視其力、從其宜而已.”

53) 『정본퇴계전서』書-黃俊良-80 答黃仲舉 “若名爲鄉賢, 而令鄉人主祀事, 則無所不可,”

54) 『퇴계연행록』(안동문화연구소 편, 『우탁선생의 사상과 역동서원의 역사』, 안동대학

이는 존현을 하는 것은 후학들이 모범으로 삼고 따라 배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유현보다는 동국의 유현을 배향하는 것이 좀 더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2) 서원에서의 강습과 지향점

이황은 서원에서 강습하는 서적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이황은 『伊山院規』에서 서원의 유생들이 반드시 독서해야 할 서적으로 『四書五經』과 더불어 『소학』과 『가례』를 들었다.⁵⁵⁾ 그런 한편 “邪誕妖異淫僻之書는 원내에 절대로 들이지 말도록” 경계했다.⁵⁶⁾ 이황이 강조한 『소학』은 己卯士林들의 필독서였고, 그들이 생각한 사회교화의 수단이기도 했다.⁵⁷⁾ 이황 자신도 『소학』을 존신하여 子姪들에게 법으로 삼도록 하였고,⁵⁸⁾ 문인들에게도 『소학』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⁵⁹⁾ 그러므로 이황이 서원에서 강습하고 추구하는 것은 과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爲己之學을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⁶⁰⁾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교, 1992, 274쪽에서 재인용).

55) 『정본퇴계전서』雜著-015 伊山院規 “諸生讀書, 以 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56) 상동 “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 並不得入院近眼”

57) 김준석, 「조선전기의 사회사상: 『소학』의 사회적 기능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29, 1981(김준석, 『한국중세 유교정치사상사론 I』, 지식산업사, 2005 所收)

58) 『명종실록』 권14 명종8년 4월 24일(기해).

59) 『정본퇴계전서』書-李珥-6 答李叔獻問目; 『정본퇴계전서』書-黃俊良-41 答黃仲舉論『白鹿洞規集解』〔松堂朴公有集解, 近始刊行〕; 『정본퇴계전서』書-李楨-111 答李剛而; 『정본퇴계전서』書-趙穆-101 答趙士敬

60) 『정본퇴계전서』記-006 「迎鳳書院記, “若吾東方, 則院教新興, 而此典未講, 儼或入院之士, 爲學之方, 不幸而不出於古人爲己之學, 而惟科目講競之事, 是尙是務, 則雖日從事

위한 공부는 금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製述만 익힐 것이면 아예 會接을 아예 정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까지 하였다.⁶¹⁾

그러므로 이황 자신이 主唱하여 고향인 예안에 세운 易東書院에서는 이산서원의 원규를 본받아 원규를 제정하고, 주로 성리학을 강론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원에 서적이 구비되어 있어야 했다. 당시 역동서원에서 필요로 했던 서적은 四書を 비롯하여, 통감, 송사 등의 서적이었다.⁶²⁾ 이러한 책을 읽고 상량하는 이유는 道學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의 居接은 단순히 독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講會가 중심이 되어야 했다. 실제로 이황은 역동서원에서 문인들과 더불어 부단한 강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강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것은 『心經』이었다. 『심경』은 이황 자신이 매우 존신하기도 하였거니와, 조목·김부필·김부륜 등 핵심 제자들이 程敏政이 편찬한 『심경부주』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황과 제자들 사이에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이다.⁶³⁾

『심경부주』와 관련된 일련의 토론들은 역동서원에서의 강회를 비롯하여 퇴계의 예안제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토론되었으며, 조목뿐만

於書林藝苑之中，而求邇聖賢之門墻，比如適越而北轅，反之於心而無得，揆之於事而太乖，豈不可畏之甚耶？”

61) 『정본퇴계전서』書-琴應夾-30 與琴夾之〔己巳〕 1569년 4월 “書院本意，不爲習舉業設也，而第一會儒生，適當臨試之月，諸生之心，專力於彼，勢不可禁彼業而專讀書。緣此又今日習製述，非設院倡學之意。愚意不如姑停會接”

62) 『정본퇴계전서』書-金富弼-28 【答烏川諸君】 1568년 9월 1~14일 “前聞趙士敬云“僉意欲爲易東書院圖得公質書冊，今有可圖之勢”。第未知所欲得者何書，度其價物幾何，已令書館具錄四書·四經·通·宋等書價定幾匹以來，來即當更報。”

63) 『정본퇴계전서』書-鄭士誠-7 答鄭子明 1570년 10월 “避暑於易東書院，因共讀『心經』壹過，殊有警發人處，亦有省改舊迷惑處。第以阻水爲患，僅十餘日而散去，未能加積久之功，爲大欠耳”

아니라 황준량,⁶⁴⁾ 김부필⁶⁵⁾ 등 초기 제자들은 『심경』과 『심경부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황의 자세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제자들의 비판에 대하여 이황은 적극적인 해명을 시도하였다. 결국 이황은 「심경후론」을 통하여 다시 『심경부주』는 존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허형이 『소학』을 신명과 같이 공경하고 부모와 같이 높은 바와 같이 자신에게 『심경』이 이러한 책이라고 하여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였다.⁶⁶⁾ 그러면서 조목에게 정민정의 인간됨을 들어 『심경부주』를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⁶⁷⁾

- 64) 『정본퇴계전서』書-黃俊良-85 答黃仲舉問目 1563년 1~2월. “來喻以『心經』所引諸書漫無統紀爲病，竊恐其未然也。彼『大學』·『中庸』等書，固有綱條脈絡之齊整分明，此自作一書，其體當然也。若『論語』，雖間有類記處，而率多雜糅¹⁾，『孟子』則尤多散漫，隨手拈掇，何嘗必以『庸』·『學』爲法耶？況所引諸書，略有時世之先後，而聖賢之言，亦自有寢闡寢明，以至於大備而後已，又何須類分然後爲得耶？『大學』平天下章，程子嘗以類分，而朱子以爲類分則意味反淺，不若從舊錯出者之爲得丁寧反覆之意也。滉於此經，亦謂如此。來喻又謂‘篋墩見之不明，擇焉不精’，尤未敢聞命。夫眞西山議論，雖時有文章氣習，然其人品甚高，見理明而造詣深，朱門以後，一人而已。范蘭溪有得於此學，朱門所許，蓋非獨一「心箴」也。今乃以華而不實·蔓而不切，誦二子，愚所未安。慈溪黃氏詆伊川之言，未知見於何書？若『心經』二條，則非詆伊川，實所以發明程·朱遺意，其言意藹然，忠厚懇惻，揀世之藥石也。篋墩以三子之言實之大註，程·朱之言或在小註，非擇之不精，只以言有賓主，意有淺深而然耳。至於竊附之說，篋墩非欲於此自爲論道，但略見其所以去取諸說，以爲此註之意，故輕輕地說過，此正得其附說之體。盛論乃以爲此書之一欠，愚不知如何而作乃得此書之無欠耶？大抵高明平日議論見識，未免有務高喜事之弊，故致此失當，而又欲使滉有所刪改於其間，此何異大匠造建章，千門萬戶，各已天成，而一朝遽使血指汗顏者，拆壞梁棟，胡亂改作，血指妄作者，在所不言，其使之爲是者，人以爲何如人也耶？”
- 65) 『후조당선생문집』 권4 讀書筭錄 心經 “慈溪臨川諸說 全廢學問 偏主德性 冗然無所講明 而欲如禪家之坐忘 篋墩取此於末 使天下學者 皆爲棄學問 而尊德性 其誤甚於慈溪臨川矣”
- 66) 『정본퇴계전서』잡저-002 심경후론 1566년 7월 “許魯齋嘗曰 “吾於『小學』，敬之如神明，尊之如父母。”愚於『心經』亦云，惟草廬公之說，反復研究，終有伊蒲塞氣味，羅整菴之論得之。學者當領其意而擇其言，同者取之，不同者去之，其亦庶乎其可也。”
- 67) 『정본퇴계전서』書-趙穆-148 與趙士敬 1569년 윤 6월 4일 “早晚，講訂『心經』，更知此書不易得也 向日，妄論篋墩爲人及『心經』不可廢，”

그러나 이황의 「心經後論」이 제출되었지만 제자들은 이황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황이 서거하는 해인 1570년에 개최된 역동서원의 강회에서도 김부필 등 10여 인들은 이황의 입론에 반대하고, 적극적인 비판을 전개한 것으로 보아, 『심경부주』를 둘러싼 논쟁은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⁶⁸⁾

결국 이러한 이황의 강학활동은 주자학의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림의 정치적 이상을 학문적으로 추구하여 그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원의 운영에는 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했다.

풍기의 소수서원에서 원생들의 권당이 있었을 때 원생을 모욕한 金仲文을 편들어 원생들의 就院을 강요한⁶⁹⁾ 군수 金慶言에게는 그 잘못을 질책하고, 향중의 선배들인 朴承任·黃俊良에게 부탁하여 원생들이 서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라고 충고하였다.⁷⁰⁾ 그러므로 이황은 서원의 운영은 관에서 운영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감독의 위치에 그치면서,

68) 『정본퇴계전서』書-李德弘-40 答李宏仲 1670년 7월 18~19일 “其初，苦避暑無所，被金彦遇諸人勸挽往書院，漸聚得十餘人，共讀『心經』，講論之際，多所開發，方知昔日味誤處不少，信乎獨學成孤陋，麗澤深滋益，恨不得與君共此樂也。第緣諸人各不能無事，故不得爲久住計，不免指日趁課，有匆匆說過了，正與朱門讀書法相違，其間又或有滯見硬說，不能虛心順理，合衆說而公折衷處亦多，如滉，自恐已見之亦誤，竟不能力主張而過去，其或已見明無疑處，雖力言之，竟不相信，以此見講學到十分是處，亦甚不易事也，奈何奈何?”

69) 『정본퇴계전서』書-金慶言-1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丁巳○郡守金慶言〕 1557년 2월 16일 “足下右仲文而非諸生，致令仲文益橫，而諸生之辱滋甚，今諸生若無故而復聚，則是諸生之去就不明，而書院之體輕矣。”(이 편지는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으나 퇴계의 서원운영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70) 상동 “豐二郡先達之鄉居者如朴重甫·黃仲舉輩而懇起之，令約期詣院，而招諸生以入院，諸生宜無敢不至者，如是則足下有下士之美，諸生無自輕之愧云云.”

구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⁷¹⁾ 그렇기 때문에 서원에서의 교육은 山長이나 洞主가 담당하되 遺逸之士나 閑散人으로서 재덕이 있으면서 일세의 사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²⁾ 이황은 역동서원을 건립할 때도 司馬所의 인원이 서원의 건립에 간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관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다.⁷³⁾

이러한 이황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역동서원이 건립되고 난 다음 토론의 주제로 떠오른 것은 학문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 향약의 제정 등 향중의 공적인 문제도 같이 논의되고 있었다.⁷⁴⁾ 서원에서의 강학활동은 단순히 학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활동은 향약의 보급, 그리고 『소학』의 강습을 통한 성리학적 인간형의 확립을 추구했던 기묘사림들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기도 했다. 이황이 서원의 운영에 관이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것은 이

71) 『정본퇴계전서』書-沈通源-1 上沈方伯〔通源○己酉〕 1549년 12월 “則欲請依宋朝故事，頒降書籍，宣賜扁額，兼之給土田臧獲，以贍其力，又令監司·郡守，但句檢其作養之方，贍給之具，而勿拘以苛令煩條。”

72) 상동 “凡書院必有洞主·或山長爲之師，以掌其教，此一件大事，尤當舉行，但此須擇於遺逸之士，或閑散之員，而其人才德望實，必有出類超羣之懿，卓然爲一世師表者，乃可爲之。”

73) 『정본퇴계전서』書-趙穆-109 與趙士敬·琴聞遠〔丙寅〕 1566년 3~4월 “又不可使司馬所人都幹其事，必別有一可信幹事者都付，然後可議其他，此恐難得其人，奈何？公等近當見城主云，故告之如右”

74) 『정본퇴계전서』書-趙穆-130 與趙士敬 1568년 1월 14일 “示諭序齒之事，院中則君未諾，而烏川諸人已諾之，鄉中則君與諸君，皆不念聽於鄙說，滉亦當與諸君辨論時，有所未聞，而其後乃知諸君所以然之故，諸君但執“恥下賤”三字，以遂欲上入之心，亦不可謂全非，然禮義由賢者出，諸君皆以一時鄉賢，當此等處變處，當深求古義，細考禮文，必須洞見其所處之宜，能不失先王設鄉法鄉禮之意如此其重處，然後優而爲之，顧乃逞氣爭勝，只據一時一邊不便宜處，求自便而已，不復問古義如何，鄉禮如何，專不類賢人君子處事氣象，是爲可歎耳。”

미 그 당시 이황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성리학자들을 ‘小己卯’라 지목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⁷⁵⁾ 그러므로 이황은 서원이 담당해야 할 임무를 학문의 창달뿐만 아니라 ‘향촌의 교화’라는⁷⁶⁾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서원은 강학과 더불어 당시 사람들이 꿈꾸었던 향촌 자치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IV. 맺음말

조선에 있어서 서원은 중종대 주세붕에 의해 백운동서원이 창건된 이래, 퇴계 이황이 서원의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사림의 藏修之地로 간주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서원은 조선중기 이래 사족의 교육·교화 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대표적인 향촌운영기구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특히 17세기 이후 향교·유향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서원은 재지 사림의 중심적 기구로 되었으며, 이후 정치·사회·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원 창설기의 사림의 종장으로 활동하였던 이황은 서원의 창설에 부단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황은 서원의 창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인들

75) 『宣祖修正實錄』 권3, 선조 2년(1569) 6월 1일(계유).

76) 『정본퇴계전서』跋-025 書李大用研經書院記後 1567년 10월 16일 “今之學校，遍于中外，士之遊居於此足矣。何所取於書院，而惓惓若是，其不以無拘於學政，而可專於吾學也耶？然則彼中諸人所以合謀竝力，大作此院者，夫豈徒然哉？倡起奮發，實從事於爲己之學，相觀而善，相勗以成者，必有其人也。”

과 끊임없이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이황의 서원에 대한 관심은 이후 조선에 있어서 서원의 운영과 제향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황은 서원의 제향인물을 道學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이황이 처음부터 도학자만 서원에 제향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충절과 도덕 모두 제향의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성주 영봉서원의 위차 및 배향논쟁을 거친 후 道學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영봉서원에 배향될 인물로 李仁復을 거명하고, 역동서원에 禹倬을 배향하도록 결정한 것은 모두 道學을 중시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 이인복을 ‘名敎에 도움이 된’ 인물로 평가하고, 충절로 평가받고 있었던 우탁에 道學者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킨 것도 이황이 고려시대의 인물을 도학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황이 서원의 기능 중 하나로 주장했던 尊賢은 당시 사람들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정한 道學者를 존송하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이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 한편 이황은 東國의 인물들만을 향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존현을 하는 것은 후학들이 모범으로 삼고 따라 배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유현보다는 동국의 유현을 배향하는 것이 좀 더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황은 서원이 담당해야 할 임무를 학문의 창달뿐만 아니라 ‘향촌의 교화’라는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서원은 강학과 더불어 당시 사람들이 꿈꾸었던 향촌 자치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사림의 ‘爲己之學’이 성숙해야만 했다. 이황이 서

원에서 講學을 강조하고 講會를 열어 끊임없이 주자학의 이해를 심화시켰던 것은 사람의 정치적 이상을 학문적으로 추구하여 그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1. 史料

『高麗史』 『明宗實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練藜室記述』
『定本退溪全書』(퇴계학연구원, www.toegye.org) 『퇴계서집성』(권오봉 편, 포항공과대학교, 1996) 『退溪集』 『錦溪集』(黃俊良) 『月川先生文集』(한국국학진흥원, 2004) 『佔畢齋集』(金宗直) 『後彫堂先生文集』(金富弼)

2. 논저

김우기, 『16세기 척신정치의 전개와 기반』,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김준석, 『한국중세 유교정치사상사론 I』, 지식산업사, 2005.
안동문화연구소 편, 『우탁선생의 사상과 역동서원의 역사』, 안동대학교, 1992.
柳洪烈, 『한국사회사상사논고』, 일조각, 1980.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 경인문화사, 2008.
정만조, 『조선시기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劉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
고석규, 「조선 서원·사우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그 성격」, 『외대사학』1, 1987, 145~183쪽.

- 박양자, 「이퇴계의 서원관」, 『퇴계학보』83, 1994, 7~42쪽.
- 설석규, 「주희·이황의 이학적 세계관과 현실대응 자세」, 『안동학연구』5, 2006, 17~48쪽.
- 이병휴, 「사림의 진출과 사회」, 『한국사28: 조선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국사편찬위원회, 1996, 174~204쪽.
- 이우성, 「퇴계선생과 서원창설운동」, 『퇴계학보』19, 1978, 203~210쪽.
- 이태진, 「사림과 서원」,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12, 1978, 115~163쪽.
- 이혜준,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국사편찬위원회)21, 1991, 3~28쪽.
- 정만조, 「퇴계 이황의 서원론: 그의 교화론과 관련하여」,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371~391쪽.
- 정만조, 「한국 서원의 연구현황과 전망」,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한국의 서원과 학맥연구』, 2002, 국학자료원, 9~28쪽.

Abstrac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eowon(書院) in the Age of
King Myungjong Identified by *Lee Hwang*(李滉)'s Letter

Kim, Hyeong-Su

This paper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eowon* during the age of *King Myungjong* through *Lee Hwang's* letter. In the Choseon Dynasty, *seowon* was expanded as the center of confucian scholars(士林) because *Lee Hwang* had emphasized the *seowon* education. In particular, *seowon* had been recognized as a main organization of local community(鄉村共同體) management performing as the institution of education and moralizing since the middle of Choseon Dynasty. Thus, *seowon* had been the central organization of local gentry(在地士族) after 17th century, and then served important roles in politics, society, and education.

As *Lee Hwang* had worked as a leader of confucian scholars during that time, he put a lot of efforts for the establishment of *seowon*. He exchanged ideas and opinions with confucian scholars through lots of letter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eowon*. *Lee Hwang's* effort and interest in *seowon*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management of *seowon* and the decision of objects for sacrificial rite(祭享).

Lee Hwang set the objects for sacrificial rite by neo-confucian moral(道學). In fact, he didn't insist on placing neo-confucian moralists(道學者) into *seowon* from the beginning. At first, he set allegiance(忠節) and neo-confucian morals(道學) as standards of sacrificial rite. However,

Lee Hwang presented neo-confucian moral a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after the dispute over neo-confucian moral in *Youngbong seowon*(迎鳳書院) of SeongJu. Because he regarded neo-confucian moral very highly, he put *Lee Inbok*(李仁復) into *Youngbong seowon* and *Utag*(禹倬) into *Yougdong seowon*(易東書院) as objects for sacrificial rite. These decisions show that Lee Hwang reevaluated scholars of Koryo Dynasty by neo-confucian moral. Therefore, the respect for sages that Lee Hwang had stressed as a role of seowon reflected the ideal of confucian scholars at that time. On the other hand, *Lee Hwang* chose only Koreans as objects of sacrificial rite. That was why he thought that the sacrificial rite for Koreans confucian sages(東賢) rather than Chinese confucian sages(中國儒賢) was effective in moralizing gentries.

Lee Hwang considered that *seowon* was not only responsible for promotion of learning but also moralize rural community which was the political goal of confucian scholars. This means that seowon had to play a key role of rural community and scholarly learning as well. For this goal,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office was to be minimized and 'wigijihag(爲己之學)' of confucian scholars had to be matured. *Lee Hwang* emphasized seminars(講學) and intensified the teaching of *Chutzu*(朱子) through forum(講會) to obtain the foundation for political ideals of confucian scholars.

Key Word

seowon, *Lee Hwang's* letter, sacrificial rite(祭享), neo-confucian moral(道學), forum(講會)

- 논문투고일 : 2013.7.8. 심사완료일 : 2013.7.30. 게재결정일 : 2013.7.30.